



# 언론 보도 사항

2017. 2. 22.(수)

119종합상황실

- **이흥교 강원소방본부장,인제소방서 방문** - 국제뉴스
  - 강원소방본부장은 21일 오후 인제소방서 원통119안전센터를 방문 현안사항 등 보고받음
- **이베이코리아 강원소방본부에 후원물품 전달** - 아시아경제
  - 이베이코리아 20일 춘천소방서에서 후원 물품 전달
- **건조특보 16일째 메마른 동해안 산불 주의** - 연합뉴스,뉴시스
  - 6일부터 강원 동해안에 건조특보가 보름 넘게 지속 부주의로 인한 산불 주의 요구

## - 소방서 언론동향 -

- 춘천 1급 소방안전관리자 대상 소방안전교육 - 소방방재
- 원주 전문응급처치 능력 향상 교육 - 도민일보,엔사이드,국제뉴스,소방방재
- 강릉 화재예방 간담회 개최 - 도민일보,포커스뉴스,엔사이드
- 동해 동해시 큰발한마을 화재없는 안전마을 선정 - 엔사이드
- 태백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전수조사 - 참뉴스,소방방대,뉴시스,
- 속초 영랑119안전센터 신축이전 갈광질팡 - MBC강원영동,소방방재
- 삼척 문화재시설 동절기 안전점검 기동팀 운영 - 소방방재,세이프투데이
- 홍천 화재에 취약한 재가공 방염합판 사용주의 - 홍천뉴스투데이,세이프투데이
- 횡성 돼지농장서 불 새끼돼지 1천여 마리 폐사 - SBS,MBC,연합뉴스
- 정선 정선 고한 상가 화재 인명피해 없어 - SBS,YTN,G1,MBC강원영동
- 인제 이흥교 강원소방본부장,인제소방서 방문 - 국제뉴스,강원신문
- 고성 한국119소년단 모집 - 소방방재
- 기타 소방서장 동정 - 강원일보

## 이흥교 강원소방본부장, 인제소방서 방문



이흥교 강원소방본부장은 21일 오후 인제소방서 원통119안전센터를 방문해 소방공무원 및 인제의용소방대연합회장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상철 인제소방서장으로부터 올해 주요업무와 당면 현안사항 등을 보고받았다.

이 본부장은 올해 완공예정인 원통119안전센터 신축사항 및 동절기 소방활동 실적 등 2017년 시책 및 현안 업무보고를 받은 후 원통센터 신축 현장을 방문하였다. 이 후 인제군청을 찾아 이순선 인제군수와 관내 지역방재 구축을 위한 깊은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이 본부장은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을 철저히 추진한 노고에 고마움을 표하며 "봄철 건조한 기후로 도내 전역에서 산불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봄철 화재예방대책도 철저히 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아시아경제 **이베이코리아, 강원 소방본부에 후원물품 전달**



온라인 쇼핑몰 G마켓과 옥션, G9를 운영하는 이베이코리아는 20일 춘천소방서에서 후원 물품 전달식을 열었다.

이번에 베이코리아는 강원본부 관할 내 14개 소방서와 41개 119안전센터에 제설기, 신발건조기, 세탁기 등을 제공했다. 전달식은 이흥교 강원소방본부장, 김철종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장, 서민석 이베이코리아 부사장, 최인창 119소방안전복지사업단장 등 내외빈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강원본부 소방관 지원은 이베이코리아가 지난해 12월 대한민국재향 소방동우회와 맺은 양해각서( MOU)를 바탕으로 이뤄지는 첫 후원사업이다. 이베이코리아는 분기별로 지역을 선정해 소방관 지원사업 중 사상 최대 금액인 연간 10억원을 소방동우회에 기부하고 후원물품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베이코리아는 '영웅, 여기에(Here Hero)' 콘셉트로 소방관의 본질인 출동에 주목했다. 소방관들이 긴장 속에서 가장 오래 머무는 대기공간 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소방동우회의 현장 방문조사를 바탕으로 실질적으로 필요한 물품을 제공해 근무환경을 개선할 방침이다. 또한 상대적으로 후원 물품이 시급한 지방직 소방본부를 중심으로 진행한다.



지난 6일부터 강원 동해안에 건조특보가 보름 넘게 지속하는 가운데 부주의로 인한 산불이 발생해 주의가 요구된다

21일 오전 11시 56분께 강원 강릉시 강동면 안인진리에서 쓰레기 소각을 하던 불씨가 인근 산으로 옮겨붙으면서 산불이 났다.

불은 산림 330㎡를 태우고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원 등 70명과 헬기 2대에 의해 1시간 만에 꺼졌다. 관련 기관은 실화자에 대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할 예정이다.

강원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산불과 들불 등 임야화재는 총 928건이다.

이 중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800건(86%)이다.

세부 원인별로 보면 담뱃불로 인한 화재가 298건, 쓰레기 소각 183건, 불씨 방치 109건, 논·밭 태우기 87건, 기타 123건 등이다.

이흥교 도 소방본부장은 "입산 시에는ライター나 성냥 등 인화성 물품을 소지하지 말고, 지정된 곳이 아닌 장소에서 농산 폐기물을 소각행위를 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 건조특보 16일째…메마른 동해안 산불 '주의'



강원도 소방본부(본부장 이흥교)는 21일 건조한 날씨에 산불 발생이 우려된다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특히 영동 지역은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이어서 더욱 산불 발생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3년간(2014~2016년) 발생한 임야 화재는 928건이며, 이 중 800건(86%)이 부주의가 화재 원인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담뱃불이 298건으로 가장 많았고, 쓰레기 소각 183건, 불씨 방치 109건, 논·밭 태우기 87건, 기타 123건으로 집계됐다.

이흥교 소방본부장은 "입산 시에는 인화성 물품을 소지하지 말아야 하고, 지정된 곳이 아닌 곳에서는 농산 폐기물을 소각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등 산불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 강원도 3년간 임야화재 928건…담뱃불 원인 298건(32%)



강원도에서 지난 3년간 발생한 임야화재 중 30%이상이 담뱃불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강원도소방본부(본부장 이흥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4~2016년) 임야화재 총 928건 중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86%(800건)로 나타났다.

세부 원인별로 보면 담뱃불에 의한 경우가 298건, 쓰레기 소각 183건, 불씨 방치 109건, 논·밭 태우기 87건, 기타 123건으로 나타났다.

이흥교 소방본부장은 “요즘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면서 산불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산에 올라갈 때는ライター나 성냥 등 인화성 물품을 소지하지 말아야 하며 지정되지 않은 곳에서 농산 폐기물을 소각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 춘천소방서, 1급 소방안전관리자 대상 소방안전교육

춘천소방서(서장 안중석)는 21일 오후 2시 소회의실에서 1급 소방안전관리자 21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지난 2월 4일 경기도 화성시 소재 동탄메타폴리스 상가 공사 중 발생한 화재사고와 관련해 대형 소방대상물 관계자의 안전의식을 환기시키고 화재예방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대형공사장의 화재 사고사례 전파 ▲소방안전관리자의 임무 및 책임규정 안내 ▲용접공사 등 위험 작업 시 자체안전관리 강화 ▲자위소방대 활용한 초기 대응체계의 구성·운영 교육 ▲소방시설 폐쇄, 차단행위 엄정대처 안내 등으로 진행됐다. 안중석 서장은 “대형 작업장은 화재 시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된다”며 “관계인의 철저한 안전관리 의식으로 선제적 화재예방에 힘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 춘천소방서, 감염관리실 운영실태 자체 점검

춘천소방서(서장 안중석)는 21일부터 오는 23일까지 3일간 감염관리실 운영실태 자체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감염관리실 응급처치기구 소독과 관리상태를 확인하고 소독기 등 장비 사용방법 숙지 여부 확인, 구급대원 직무교육 순으로 진행된다.

중점 점검내용은 ▲감염관리실 일일 점검부 작성 및 결재상태 ▲구급물품관리통합시스템(ESMI)장비 입력 및 사용대장 작성 상태 ▲감염관리실 플라즈마 소독기 등 장비 사용방법 숙지 여부 ▲각종 수납함 용도에 따라 소모품, 의약품 구분 후 주기표 기록 확인 등이다.

구급대 직무교육 내용으로는 구급활동일지 작성시 주의사항, 구급물품관리통합시스템(ESMI) 사용확인과 지도, 구급대원 폭행시 대처방법과 현장활동 안전사고 방지 교육 등이 있다.

홍순도 구조구급담당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구급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수시로 소독하고 병원성 세균을 사전에 차단해 감염방지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 춘천 양구119, 해빙기 수난구조 훈련



춘천소방서(서장 안중석) 양구119안전센터 소속 직원과 의용소방대원 30여 명이 21일 오전 10시 양구읍 월운리 소재 월운저수지에서 해빙기 수난사고 대응을 위한 구조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해빙기 수난사고 시 선제적인 수난구조능력을 배양하고 전문적이고 다양한 구조기법을 익힘으로써 수난사고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수난구조장비 사용법과 현장안전관리, 응급처치교육, 인명구조훈련으로 진행했다.

김명규 양구119안전센터장은 훈련 참가 직원들에게 “반드시 안전수칙을 준수해 단 한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전했다.

## 원주소방서 전문응급처치 능력 향상 교육



원주소방서는 21일 오전 응급의료 현장 구급대원을 대상으로 수준 높은 119구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새로 도입한 신형 전문구급장비 및 실습장비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비디오 후두경 사용법, 혈관검출기 활용법, 골강내 주사기 사용법, 팀 CPR방법 등 전문적인 교육이 되도록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소방서 관계자는 "전문구급장비 활용을 통해 응급환자에게 더 신속하고 효과적인 구급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게 됐다"며 "구급대원의 장비숙달 교육을 체계적으로 진행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119구급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원주소방서(서장 원미숙)는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일환으로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관내 노후공동주택 및 자체점검 실시 대상 공동주택 12개소에 대해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한다.

소방서에 따르면 공동주택은 고층구조의 한 건물에 많은 주민들이 생활하고 있어 화재 발생 시 대규모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예방차원에서 이번 특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원주소방서는 이번 소방특별조사를 통해 소방시설 안전관리, 단지 내 소방차 주차공간 확보와 피난시설 안전픽토그램 부착 유무와 피난통로 불법 적치물 등을 집중 조사하고,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안내, 화재예방 안내방송 등을 통해 화재예방의식을 고취할 예정이다.

원미숙 소방서장은 “전자식 자동개폐장치 설치 의무에 해당하지 않는 공동주택에 대해 설치 권고와 계도를 실시해 입주민에 대한 화재안전을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소방당국은 2016년 2월 29일부터 사업계획 승인 공동주택 대상 옥상 출입문에 대해서 전자식 자동개폐장치 설치를 의무화 하고 있다. 전자식 자동개폐장치란 평상시에는 옥상 출입문을 닫아놓고 화재나 긴급상황 발생 시 소방시스템과 연동이 되어 자동으로 열리게 만든 장치다.

## 강릉소방서, 화재예방 간담회 개최



강릉소방서(서장 주향중)는 21일 서내 '1급 소방안전 관리대상 및 대형건축물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복합건축물 화재 예방 방안을 논의했다.

## 강릉소방서, 해빙기 수난구조훈련 실시



21일 강원 강릉소방서는 강릉 국민체육센터에서 구조대원 15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수난구조훈련을 실시했다. 훈련은 해빙기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수난사고 상황을 가정하여 수난구조장비를 이용한 인명구조훈련과 물에 가리았었을 경우를 대비한 잠수이론과 수중수색실습, 응급처치 순으로 진행되었다.

## 강릉소방서, 대형화재취약대상 관서장 지도방문



강릉소방서 주향중 서장은 21일 관내 요양시설 및 전통시장 등 대형화재취약 소방대상물을 방문하여 화재위험요소와 소방시설에 대해 현장 지도방문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지도 방문은 화재발생 시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의 우려가 높은 대형 소방대상물을 관서장이 방문하여 소방시설, 피난로 확보 여부 등 소방안전관리 상태를 확인하고, 화재예방 및 구체적인 대응 방법을 모색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됐다.

주향중 강릉소방서장은 “평상시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통해 대형화재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화재발생시 관계자의 역할분담으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전했다

## 동해시 큰발한마을 화재없는 안전마을 지정



동해소방서(서장 김영조)는 21일(화) 오후2시 동해시 발한동 큰발한마을에서 '화재없는 안전마을' 사후관리 행사를 가졌다. 발한동 큰발한 마을은 2015년에 화재없는 안전마을로 지정했다.

이번 행사는 기존에 마을 각 가정에 보급된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점검하고, 고장이나 훼손 시 새로 교체하는 순서로 진행됐으며 소화기사용법 등 소방안전교육도 병행했다.

김영조 동해소방서장은 “화재없는 안전마을은 소방서와 원거리 지역에 위치한 마을을 화재 없는 마을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며 “소방력 출동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만큼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서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원 태백소방서(서장 석교준)는 21일부터 4월말까지 태백시 전가구를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강원도 내 태백시, 정선군, 양구군 등 3개 시군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되는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도를 높이고 정확하게 파악된 설치 현황을 기초로 향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확대 정책 방향을 설정할 예정이다.

조사대상은 지역 내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으로 아파트를 제외한 모든 주택이며 단, 오래되거나 층고가 낮아 가구별 소방설비가 없는 아파트도 조사 대상이다.

또한, 태백여성의회소방대원으로 구성된 조사원들이 방문해 7개 항목에 대한 간략한 설문을 작성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실시한다.

석교준 태백소방서장은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설문을 간략히 준비했다”며 “비역 내 조사대상이 1만여 가구에 이르는 만큼 원활한 조사를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태백소방서(서장 석교준)가 21일 오후 2시 태백장애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해 현장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지도는 지난 4일 발생한 동탄메타폴리스 화재사례를 전파하고 유사화재를 방지코자 마련됐다.

현장에 방문한 태백소방서장은 소방시설 및 피난시설 정상기능 유지·관리 상태 등을 확인하고 화재위험요인 사전 제거될 수 있도록 관계자 지도를 했다. 또 용접·용단 작업 시 소방서 사전신고 사항을 안내하고 필요시 소방차가 근접배치 될 수 있도록 연락해줄 것을 당부했다.

석교준 서장은 “평소 소방시설을 수시로 점검하고 순찰활동 강화하는 등 소방서와 긴밀한 협조로 화재예방은 물론 안전한 지역 만들기에 동참해 달라”고 전했다.

## 영랑119안전센터 신축 이전 '갈팡질팡'



남)속초소방서가 속초 북부권의 신속한 화재사고 대응을 위해 영랑 119안전센터 신축 이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하지만 속초시의 오락가락하는 행정으로 부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속초시 교동 옛 소방서 부지에 있는 영랑 119안전센터.

영랑동에 있던 예전 건물이 낡고 좁은 데다 소방차 진·출입이 어려워 지난 2010년 이곳으로 임시 이전했습니다.

새 부지를 마련할 때까지 조립식 가건물을 이용하고 있어 근무 환경은 열악하고, 속초 북부지역과 거리가 멀어 신속한 화재 진압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S/U)이 때문에 속초소방서는 북부권의 화재사고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 영랑 119안전센터 신축 이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 I N T ▶ 김실용 과장

도비와 시비 등 16억 원을 들여 지난해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문제는 부지 확보입니다.

속초시와 협의를 거쳐 지난해 영랑동의 한 사유지를 센터 신축 부지로 정하고 설계까지 마쳤지만, 북부권 재개발에 필요한 땅이라며 뒤늦게 일부 주민과 시의원이 반대해 무산됐습니다.

부지 물색이 어려워지자 소방서는 속초시청 인근에 있는 도유지를 부지로 검토하고 있지만, 이번에는 속초시가 도시계획도로 예정지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 ◀ S Y N ▶ 속초시

속초시는 오는 22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해당 도유지를 센터 부지로 써도 되는지 논의할 예정이지만, 가결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 사업이 속초시의 충분한 사전조사 없는 행정으로 좌초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 속초소방서, 해빙기 빙상·붕괴·추락 안전사고 주의



▲ 속초소방서(서장 정효수)는 21일 빙상안전사고, 지반붕괴 사고 등 해빙기 안전사고 주의를 당부했다.

해빙기에는 토양이 평균 9.8%가량 부푸는 배부름 현상과 봄방학을 전후해 가족 단위 여가생활과 낚시 등 야외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사고 발생 위험률이 높아지므로 안전사고 예방에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에 소방서에서 몇 가지 안전수칙을 안내했다. ▲야외활동 시 얼음위에서 낚시, 빙상놀이 등을 하지 않도록 한다 ▲어린이가 빙상놀이를 하는 경우에는 항상 보호자가 동행해 관리하고 사고에 대비한다 ▲사고 발생시에는 지체 없이 119에 신고하고 주변사람에게 알려 침착하게 장대, 로프, 구명환 등을 이용해 구조한다 ▲사고자를 구조했을 경우에는 외투나 담요 등을 덮어 보온조치를 하고 회복 후에는 의사의 진찰을 받는다.

또 해빙기 붕괴사고 예방을 위해 공사장 주변 도로나 건축물 등에서 지반침하로 인한 이상 징후는 없는지 확인하고 추락 또는 접근금지를 위한 표지판이나 안전펜스가 제대로 설치됐는지 확인한다. 축대나 옹벽이 균열이나 지반침하로 기울어져 무너질 위험은 없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해빙기에는 빙상놀이 중 익수사고나 옹벽·축대 붕괴로 인한 사고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 속초소방서, 맞춤형 현지적응훈련



▲ 속초소방서(서장 정효수)는 21일 오전 10시 관내 대형건물(설악 금호리조트)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해 대상물에 맞는 화재진압 작전을 구상하기 위한 맞춤형 현지적응 훈련을 실시했다.

## 삼척소방서 문화재 시설 동절기 안전점검 기동팀 운영

중요 문화재 화재 예방 위해 추진



삼척소방서(서장 김형도)는 21일 관내 문화재 시설에 대한 ‘동절기 안전 점검 기동팀’ 운영으로 중요 목조 문화재 화재예방에 큰 효과를 보고 있다고 전했다.

문화재시설 안전점검 기동팀은 연소 확대가 빠르고 화재 진압에 어려움이 있는 관내 중요 목조문화재에 대한 사전점검활동으로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방어대책을 마련, 자율대응능력 강화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특수시책으로 진행하고 있다.

김형도 서장은 “목조 문화재의 특성 상 화재 발생 시 초기에 진압하지 못하면 문화재 손실과 인근 산불로까지 비화할 수 있어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동절기 뿐 아니라 상시 안전관리로 우리의 소중한 문화재를 조금의 손상도 없이 지켜나가겠다”고 전했다.

## 삼척소방서 긴급구조 통제단 가동 도상훈련



삼척소방서(서장 김형도)는 2월21일 오전 11시 대회의실에서 각종 재난 발생 시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긴급구조 통제단 기능숙달 도상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기능숙달훈련은 ‘중앙시장 폭설에 의한 다수 사상자 발생’ 상황을 가정해 긴급구조통제단의 가동 절차, 운영요원별 담당 임무숙지와 역할 훈련을 통해 각종 재난사고에 대한 대응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주요 조치상황에 대한 문제점 도출과 개선방안을 모색함으로써 현장중심의 대응체제 확립을 점검하는데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김형도 삼척소방서장은 “재래시장은 화재발생 시 인명과 재산피해가 커질 가능성이 높아 도상훈련을 통해 긴급구조 통제단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각자의 임무를 숙지해 비상 출동태세 확립에 만전을 기해 안전한 삼척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 삼척소방서 남양동 주민엘리베이터 소방홍보 모니터 호응

소방홍보 시책 효율적 전달 위해 설치



강원 삼척소방서(서장 김형도)가 남양동 주민 엘리베이터 내에 설치한 소방홍보 방송용 모니터가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겨울철 특수시책으로 진행 중인 소방 홍보용 모니터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소방차 길터주기 홍보 영상 등 소방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책을 동영상을 통해 볼 수 있다.

특히, 흥미유발에 이은 유용한 정보전달의 측면까지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좋은 반응이 예상된다.

한 엘리베이터 이용객은 "모르는 사람과 함께 있다 보니 조금은 어색했던 엘리베이터 이용 시간이 이제는 금방 지나간다"며 "몰랐던 정보까지 알게 돼 더 좋은 것 같다. 다양한 정보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소감을 전했다.

## 홍천소방서, 화재에 취약한 재가공 방염합판 사용주의



홍천소방서(서장 이종진)는 22일(수)부터 화재에 취약한 재가공 방염합판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인테리어업체를 대상으로 방문지도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고층건물이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을 지을 때는 불이 크게 번지는 걸 막기 위해 방염처리가 된 자재를 쓰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표면이 매끈한 방염 합판과 달리 구멍을 뚫거나 흠을 파 가공한 제품이 소리를 흡수하는 방음효과가 있다는 이유로 체육관이나 교회처럼 소음 우려가 있는 다중이용시설에 많이 쓰이고 있는데, 구멍이 난 방염합판은 방염성능이 미달되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 화재 시 큰 인명피해 발생이 우려된다.

현행법 상 방염 합판을 재가공하면 3개월의 영업정지에 처해진다.

이에 소방서에서는 관내 인테리어 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재가공 방염합판 사용불가에 대해 안전지도를 할 계획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방염합판을 재가공 했을 경우 방염성능검사서에서 거의 100% 불합격 했다.”며 “안전을 위해 방염합판을 재가공하여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 한다.”고 전했다.



## 횡성 돼지농장서 불...새끼돼지 1천여 마리 폐사



21일 오후 2시 35분께 강원 횡성군 강림면 강림리 한모씨의 돼지사육 농장에서 불이 나 1시간여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생후 1~2개월 된 새끼돼지 1천여 마리가 폐사하고 550㎡ 규모의 농장 1동이 전소했다



## 횡성소방서,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캠페인



횡성소방서(서장 이병은)는 21일 오전 11시 횡성시장에서 유관기관과 단체 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과 주택용소방시설 설치 홍보캠페인을 가졌다.

이날 캠페인은 251차 안전점검의 날 행사의 일환으로 횡성지역 장날을 맞아 장보기를 나선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변 시설물 관리로 위험요인을 없애고 얼어 있는 강물에 무작정 들어가 익수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할 것과 올 겨울 발생한 화재건수 총35건 중 17건을 차지하는 주택화재 발생률을 줄이고자 주택용소방시설인 소화기와 감지기 설치를 당부했다.

소방서 관계자는 “해빙기 안전사고 제로화 실현을 위해 지역 주민 모두 주변시설물 관리와 안전에 관심을 가져줄 것과 주택화재로 인한 피해 최소화하고자 집집마다 소화기와 감지기를 설치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정선 고한 상가 화재, 인명피해 없어



오늘 새벽 2시 55분쯤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에 있는 마트에서 불이 나 1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마트 건물 한동이 모두 불에 탔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목격자를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 소방서장 동 정



입춘을 지나 어느덧 봄의 온기가 겨울 막바지에 얼어붙은 강과 저수지를 서서히 녹이는 해빙기가 도래했다. 2월에서 4월 초순까지의 해빙기에는 큰 일교차로 인해 지반, 건축물, 바위 등이 약화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수많은 사고 위험이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는 한겨울의 지표면에는 토양에 남아있던 수분이 얼어붙으면서 부풀어 오르는 '배부름 현상'이 발생해 유지되다가 영상의 날씨가 도래하면 얼어 있던 토양의 수분이 녹으면서 지반의 침하, 변형, 변위 등이 생겨난다. 이러한 지반의 변화는 각종 건축물이나 건조물 등에 균열을 만들고 붕괴, 건조물 구성 부분의 낙하,

가스시설의 파손에 의한 가스 누출 등 다양한 안전사고를 유발한다. 위험원인과 징후의 무시, 간과는 필연적으로 안전사고를 초래한다. 따라서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면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주변을 살피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먼저 오래된 축대나 낡은 옹벽 주변에서 지반의 침하 또는 균열 등이 관찰될 경우가 있는데 이런 때에는 낙하물, 붕괴, 주변 가스시설이나 전기시설 등의 파손으로 인한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에 유의해 최소 1일 1회 이상 상태를 확인하고 위험요인이 발견될 경우 즉시 가까운 소방서 또는 읍·면사무소, 군청 등 관계 행정기관에 신속하게 신고해야 한다.

절개지 주변이나 낙석 위험이 있는 도로에서 운전할 때에는 위험지역과 가급적 멀리 떨어진 차로의 가장자리에서 전방을 주시하며 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도로의 균열이나 굴곡이 심한 부분은 피해서 운행해야 한다. 각 가정에서는 가스시설의 이완현상에 따른 가스 누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밸브 잠금 상태와 배관의 파손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난방기구를 철거할 때에는 밸브와 배관을 완전히 밀폐함으로써 가스 누출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해빙기에는 야외활동 시 많은 위험요인이 내재돼 있다. 특히 해빙기의 얼음은 결빙과 해빙의 반복으로 인해 빙질이 좋지 못하고 밀도 또한 높지 않아서 하중에 견디는 힘이 상당히 약하다. 강이나 호수 등의 얼음은 중심으로 갈수록 얇아지고 육안으로 상태를 가늠하기 어려워 얼음판 위에 함부로 들어섰다가는 수난사고를 당하기 쉽다.

만약 얼음물에 빠지게 되면 서두르지 말고 침착하게 행동해야 한다. 억지로 얼음 위로 오르는 것은 주변 얼음이 깨질 수 있으므로 가급적 삼간다. 사고 발생을 목격한 때에는 지체 없이 119에 신고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 도움을 요청한다.

산이나 강 또는 낯선 장소의 경우처럼 사고 위치를 설명하기 어려운 때에는 스마트폰으로 강원119신고앱을 내려받아 이용해야 한다. 신고방법이 간단할 뿐만 아니라 정확한 신고자의 위치가 강원소방본부 종합상황실로 전송돼 좀 더 신속히 구조 받을 수 있다. 그 외에 전봇대의 번호나 각종 위치표지판의 번호를 알리는 것도 사고 위치를 정확히 고지하는 좋은 방법이다.

산을 오를 때는 쾌청한 날씨라고 하더라도 산 위의 기온은 변화가 심하므로 보온성이 좋은 옷을 입어야 하고 미끄러운 계곡이나 능선, 돌이나 낙엽이 쌓인 곳으로 이동하는 것은 실족이나 낙상의 위험이 있으므로 피해야 한다. 봄의 문턱에서 나의 안전은 내가 지킨다는 생각으로 주변의 위험요소를 한 번 더 꼼꼼히 살펴 우리 모두 안전하게 따뜻한 봄을 맞이하길 소망해본다.

## 강원고성소방서 한국119소년단 모집



고성소방서(서장 진형민)는 고성군 관내 유치원(어린이집)과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오는 4월 20일까지 한국119소년단 단원을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한국119소년단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체계적인 소방안전교육을 제공하고 안전문화가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난 1963년 창단돼 올해로 54주년을 맞는 청소년 단체다. 지난해 강원도에서는 61개대 1,561명이 활동했으며 고성소방서는 4개대 87명으로 구성됐다.

가입 단원들은 단체봉사, 소방동요대회, 불조심어린이 마당 등 각종 대회 참여, 국내외 문화탐방 등 다양한 기회가 주어진다.

가입을 희망하는 단체는 한국119소년단 홈페이지([www.young119.or.kr](http://www.young119.or.kr)) 또는 고성소방서 방호구조과(033-680-7424)로 문의하면 된다.

## 강원고성소방서,간성시가지 일대 화재예방캠페인



고성소방서(서장 진형민)는 최근 고성군청과 간성전통시장 일대에서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 등 1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겨울철 화재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은 동절기가 끝나는 시기에 맞춰 느슨해 질 수 있는 화재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고성군청부터 간성전통시장까지 가두행진을 벌였으며 주요 내용은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홍보 ▲소방차 길 터주기 ▲소소심(소화기, 소화전, 심폐소생술) 익히기 ▲1차량 1소화기 구비하기 등 홍보활동이다.

진형민 서장은 “화재 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소방차 통행로 확보는 매우 중요하다”며 “조금은 불편하더라도 지정된 주차장에 주차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의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중석 춘천소방서장은 22일 오후 2시 네이버 연구소 공사현장을 찾아 화재 및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지도를 실시.

◇원미숙 원주소방서장은 22일 오후 2시부터 중앙동 전통시장 일대에서 소방통로 확보훈련 및 안전캠페인을 실시.